텍스트유형 교육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신문 기사문을 중심으로

신명선*

〈차 례〉

Ⅰ. 서 론
Ⅱ. 신문 기사문의 변화
Ⅲ. 신문 기사문 교육의 실태
Ⅳ. 텍스트유형 교육의 방향
Ⅴ. 결 론

Ⅰ. 서 론

'젊은이들은 〔여전히〕 읽는다-단지 신문만 빼고'라는 미국 퓨 센터(Pew Center)의 보고서 제목에서 보듯이 미국의 젊은 독자는 신문을 외면하고 있다. 젊은이뿐이 아니다. 미국의 성인이 평균적으로 신문을 보는 시간은 15분에 불과하다(ASNE Literacy Committee : Writing and Reading Today 참조(www.asne.org)). 그래서 미국 독자는 제목과 같은 굵은 활자만 대충 훑어보는 스캐너(scanner)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인이 신문을 보는 시간은 1996년 43.5분에서, 1998년 40.8분으로, 2000년에 35.1분으로 줄었다가 2002년에 37.3분으로 조금 늘었다(한국언론재단, 2002). 독자의 신문 읽기는 이미 하향 곡선에 접어들었고 그 전망은 인터넷으로 인해 더욱 어둡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대에 딱딱하고 재미없는 신문 기사를 찾아 읽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돼버렸다. 특히 표제(headline)나 전문(lead)만 읽으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 전체를 읽는 일은 소모적일 수 있다. 표제나 전문에서 얻어지는 단편적인 핵심 정보는 라디오 1분 뉴스로 족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언론학계 및 신문업 내에서는 기사문 양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기사문이라는 텍스트유형은 현재 변신 중이다.[1]

국어과에서 기사문은 그간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미디어 문식성[2]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기사문 교육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3] 그간 미디어 교육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국어과에서 미디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주력하면서 개괄적 논의가 대종(大宗)을 이루었다. 이제는 구체적인 미디어 교육 대상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체화할 시점이다.

텍스트유형은 국어과의 주요한 교육 내용이면서도 그간 텍스트유형을 독립적인 연구 과제로 삼고 그 교육 방향을 점검한 연구는 없는 듯하다. 호주의 교육과정이 장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장르(→ 텍스트유형) 중심의 교육 내용 설계의 타당성이 논의되기도 했으나[4] 교육 내용 체계 설정에 주목하면서 정작 장르(→ 텍스트유형) 그 자체에 대한 탐구는 소홀했다.

본고에서는 기사문이라는 텍스트유형을 중심으로 텍스트유형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기사문이라는 텍스트유형의 변화 과정과 그 텍스트적 특징을 고찰하면서, 기사문이라는 미디어 교육 대상을 바탕으로, 국어교육적 방향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먼저 기사문이

---

1)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한 논의로 신명선 · 박재영(2004)가 있다.

2) 국어교육의 목적인 '국어 능력의 향상'은 '문식성(literacy) 향상'과도 상통한다. 'literacy'는 '리터러시, 문식력, 문해력, 문변력, 문식성' 등 다양하게 번역된다. 문식성에 대한 다양한 담론은 '지금의 담화공동체가 가치롭게 여기는 이해와 표현 능력'이라는 박인기(2001)의 포괄적 정의로 정리되는 듯하다.

3) 관련 대표 논의로 박인기(2000)를 들 수 있다.

4) 관련 대표 논의로 박태호(2000), 이도영(1998) 등을 들 수 있다.

라는 텍스트유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 뒤 기사문(텍스트유형)의 현 교육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유형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텍스트유형'이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두고자 한다. 텍스트유형과 관련하여 '장르, 스타일, 문종, 양식'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텍스트유형'이 텍스트언어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라면, '장르'는 문학 교육론에서, '스타일'은 언론학계에서, '문종'은 국어 교과서에서,'양식은 여러 영역에 걸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개념의 내포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그 외연이 대략 상통한다는 점에서 각 국면에서 사용되는 관례를 존중하여 위 용어를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의 중 2장의 경우는 언론학계의 논의가 주로 인용될 터인데, 이 때는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텍스트유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Ⅱ. 신문 기사문의 변화

기사 스타일에 관한 논의는 미주리 그룹(The Missouri Group)으로 불리는 미국 미주리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교수들의 '역피라미드를 넘어서(Beyond the Inverted Pyramid)'가 대표적이다(Kennedy, Moen, & Ranly, 1993). 이 책에는 신문 기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기법들인 스토리의 개인화(personalization), 문장 전환(transition), 복선 또는 징후 보이기(foreshadowing), 연대기적 서술(chronology), 서사(narrative), 회상 방식의 스토리 전개(flashbacks), 효과적인 마무리(ending) 등이 실제 예를 통해 설명되어 있다.

기사 스타일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는 미국 신문편집인협회(ASNE)에 의해 시도됐다(1993). 미국 신문편집인협회(ASNE)는 이미 1990년대 초부

터 '기사 스타일 연구'에 주력했다. 이 연구는 전통형(Straight Traditional), 서사형(Narrative Mode), 극명형(Radical Clarity), 관점형(Point of View) 등 4개의 기사 스타일을 개발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주 일간지인 세인트피터스버그타임스(St. Petersburg Times) 기자 4명이 실제 기사를 위 4개의 스타일로 각자 작성해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판에 총 4번 게재했다. 기사가 실린 다음날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위 4개 스타일의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을 각각 수집했다.[5)]

각 기사 스타일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첫 번째 프로젝트의 경우, 크리스마스에 선물용으로 쓰이는 애완동물의 비극적 운명이 주제였다. 각 스타일의 기사는 실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신기함이 사라질 때(When The Novelty Wears Off)'라는 동일한 제목 아래 비슷한 분량으로 동일한 지면에 게재됐다.

전통형은 기자에게 가장 익숙한 '역피라미드 구조'식으로서 정보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전달 및 습득을 목표로 하는 스타일이다. 기사의 첫 문단에 주제가 드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역피라미드 구조와는 조금 다르다. 예컨대 '애완동물이 독살된다'는 기사의 핵심적 사실(fact)이 첫 문장 또는 첫 문단에 등장하지 않는다. 첫 문단은 "대부분 철제우리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연명한다."로 끝난다.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immediate information)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늦춰 주어(delayed information) 글을 읽는 사람의 관심을 최대한 유발하기(Brooks, Kennedy, Moen, & Ranly, 1996) 위해서이다. 이 기사의 역피라미드식 전문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쓰이는 애완동물들이 주인에게서 버림받아 독살되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다."쯤 될 것이다.

서사형은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구조를 띤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스토리의 개인화'이다. 즉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쓴다.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도록 만들어 독자의

5) 이 연구는 신명선 · 박재영(2004)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눈길을 최대한 잡아두는 방식이다. 위 예의 경우, 레슬리 스티븐스와 고양이 펌킨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어 레슬리의 경험으로 이어진 뒤, 여러 사례가 제시되면서 애완동물의 수난이라는 주제가 일반화되었다. 그 다음 '독살'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다시 레슬리와 펌킨으로 돌아가면서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전형적인 기승전결(起承轉結) 구조로서 단편 소설과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레슬리와 펌킨의 스토리가 수미쌍관(首尾雙關)을 이루는 것은 서사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런 양식의 대표적인 예가 월 스트리트 저널 기사 모형(Wall Street Journal Formula)이다.[6]

극명형은 독자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기사 스타일이다.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사안을 재미있는 스토리로 구성하는 것은 극명형의 목표가 아니다. 극명형은 첫 문단에서 사안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배경 정보부터 제공한다. 위 예의 경우, 첫 두 단락은 애완동물이 수난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주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마치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차근차근 가이드를 해주는 형태이다. 그 다음에는 애완동물이 반환되고 독살되는 통계와 전문가 인터뷰 내용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기사 형태이다. 극명형의 구조는 기사의 마무리에서 돋보인다. 애완동물을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한 처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기사의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전통형(역피라미드형)이 기사의 무게 중심을 앞쪽(전문)에 두는 반면 극명형의 무게 중심은 마무리에 있다. 극명형은 사안을 가장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므로 '행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글쓰기는 철저하게 배제된다.

관점형은 사안을 접근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상 역피라미드형을 제외한 모든 기사 유형이 관점형으로 작성될 수도 있다. 관점형은 기자의 관점이 가장 강하게 투영된 스타일이다. 관점형에

6) 특히 이 기사에는 '애완동물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식의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 마무리 역시 흔히 말하는 '힘주기' 식의 기사 쓰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독자가 그런 도덕적인 느낌을 더 강하게 받도록 만드는 묘한 효과가 있다.

서는 사안을 말로써 설명하기보다는 장면으로 보여주려고 하며, 기사 끝 부분에 요지를 담는 특징이 있다. 이는 극명형과 비슷한 점이지만 전통형이나 서사형과는 다르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 사용된 서사형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사형(Narrative Mode)

3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레슬리 스티븐스는 마지 못해 스쿠루지 놀이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생후 9주의 새끼 고양이 펌킨은 갠디가(街) 숲 속에서 스티븐스에게 발견되어 새로운 삶을 찾게 됐다. 개와 고양이의 안식처를 찾아주는 시민단체 '방랑자의 친구들'의 자원 봉사자인 스티븐스는 펌킨에게 유아용 우유와 닭고기 국물을 먹였다.

얼마 후 한 남자가 두 살 바기 딸에게 고양이를 사주려고 스티븐스를 찾아왔을 때에도 펌킨은 조금 아파 보였다. "사실 그 부녀(父女)는 날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가 펌킨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져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스티븐스는 "그 딸 아이가 너무 거칠고 무서워 보여서 펌킨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아빠를 단념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그 후에도 펌킨을 탐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때마다 스티븐스는 그들을 만류했다.

펌킨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수많은 애완동물들이 직면하는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났던 셈이다. 동물보호 단체의 직원들은 개와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이 '12월의 충동' 때문에 너무 자주 거래된다고 말했다.

애완동물은 크리스마스 연휴의 왁자지껄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곧잘 잊혀지고, 그런 무관심은 감시의 소홀로 이어진다고 동물보호가들은 말했다. 결국 새로 입양된 많은 애완동물과 주인은 동거의 첫 발부터 잘못 디뎌 동물들이 반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애완동물을 입양할 때 컨설팅부터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태는 악화일로다. 파인레스시(市) 동물보호협회 릭 샤보디 회장은 "매년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말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시(市)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게일 레시어 회장은 크리스마스 후 15마리가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반환 이유는 "보살펴 줄 여력이 없어서", "키우던 다른 개가 좋아하지 않아서", "더 넓은 정원이 없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어먹어서" 등으로 다양하다.

실례로, 6달짜리 황색 라브라도르 사냥개 제이크는 아이들에게 너무 사나웠다. 독일산 잡종 세퍼드 칩은 1.2미터 높이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옆집으로 들어가 크리스마스 휴일에 화끈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레시어 회장은 이번 달에 적어도 70마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용 애완동물이 SPCA에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레시어 회장은 "이는 동물보호소 직원과 애완동물, 주인 등 3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모두 마음에 상처가 입게 되죠. 대개 울음바다가 되곤 합니다."

파인레스시 동물보호소 켄 미첼 국장은 매년 약 1만5,000 마리가 보호소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맡겨진 지 5일 후, 대부분은 치사량의 바르비투르산염 주사를 맞는다. 보호소에 들어오는 동물의 80%가 그렇게 죽는다.

SPCA와 파인레스 동물보호협회에 반환되는 개와 고양이의 절반 이상이 독살되고 있다. 동물보호소 직원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받은 애완동물에 대한 신기함과 귀여움이 사라지는 향후 몇 달간 동물 반환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집 잃은 고양이를 보호해 '고양이 보모'로 불리는 스티븐스은 "자녀에게 그렇듯 애완동물에게도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펌킨은 결국 한 여고생에게 입양됐다고 스티븐스는 말했다. "그녀는 만신창이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잘 살고 있죠." 그 여고생이 아니라 고양이 펌킨을 두고 한 말이다.

위 4개의 기사 스타일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전통형(역피라미드형)을 제외한 서사형, 극명형, 관점형은 기사의 서두만으로는 전체 내용을 감지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역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해체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독자의 눈길을 잡아두기 위한 것인데, 그 핵심은 양파 껍질을 벗기듯 정보를 하나씩 늦춰 주는(delayed information) 데에 있다.[7]

---

7) 이와 같은 4가지 스타일에 대한 독자 반응 조사 결과, 5가지 주요 사실이 발견됐다. 첫째, 전통형(역피라미드형)은 독자에게 썩 매력적이지 못하다. 특히 신문을 잘 보지 않는 독자에게 더욱 그렇다. 고졸 이하의 독자에게는 가독성이 거의 없다. 둘째, 서사형의 이야기 구조는 대단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모든 독자 집단은 서사형을 다른 스타일보다 좋게 평가했다. 이 스타일은 그저 더 잘 읽히며 정보 전달력도 훨씬 더 크다. 셋째, 나이가 많고 총성도가 높은 독자 및 여성 독자는 덜 까다로워서 다양한 기사 스타일을 잘 받아들인다. 신문이 사로잡고자 하는 젊은 비독자는 서사형과 극명형을 선호한다. 넷째, 관점형은 일반적인 기사 스타일과 동떨어진 탓인지 또는 너무 생색내는 듯한 문체 때문인지 대부분의 독자에게 호소력이 없으며 잠재력도 적다. 단, 교육 수준이 낮은 독자에게는 그나마 선호도가 높다. 다섯째,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미래의 독자

신명선·박재영(2004)에서는 조선일보 2003년 5월 19일~24일에 실린 모든 기사 총 641개를 대상으로 신문 기사 스타일을 유형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역피라미드 구조가 대략 75%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미 약 25%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볼 수 없었다. 서사형 등 새로운 기사 스타일이 시도되고 있었다. 이미 현장의 기자들은 역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다른 유형의 기사 쓰기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사1〉

NBA PLAYOFFS 2003 동부콘퍼런스 결승1차전 / 종료 1.4초전 결승골 키드 '뉴저지 해결사'

종료 20초 전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의 천시 빌럽스(Chauncey Billups)가 자유투 2개를 넣어 74—74 동점이 되자 뉴저지 네츠는 작전타임을 불렀다. 마지막 공격기회. 확실하게 득점을 해줄 해결사가 필요했다. 바이런 스캇 감독은 주저없이 제이슨 키드(Jason Kidd)를 지명했다.

키드는 이전까지 빌럽스의 수비에 막혀 18개의 슛 가운데 5개만을 넣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동료 모두 스캇 감독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키드는 올 포스트시즌에서 평균 18.9점 7.7리바운드 9.1어시스트를 기록한 팀의 리더. 그가 살아야 팀이 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무거운 책임을 두 어깨에 짊어진 키드는 종료 1.4초 전 오른쪽 45도 지점에서 자신보다 20cm나 큰 메흐멧 오쿠르(2m13)를 피해 몸을 뒤로 젖히면서 슛을 날렸다. 포물선을 그린 볼은 깨끗하게 림 사이를 통과했다. 76—74. 곧바로 작전타임을 부른 피스턴스는 오쿠르가 종료 직전 슛을 날렸으나 허무하게 빗나갔다.

네츠가 제이슨 키드의 종료 1.4초 전 결승골로 19일 피스턴스의 홈코트에서 열린 동부콘퍼런스 결승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2차전은 21일 열린다. 네츠는 키드가 15점 9리바운드 7어시스트, 케넌 마틴이 16점 9리바운드로 공격을 이끌었다.

3점슛은 10개 중 하나만을 넣은 데 그쳤지만 전체 야투율에서 40%로, 35%의 피스턴스를 앞섰다. 또 정규 시즌 리바운드 1위 벤 월러스(6점 22리바운드)를 앞세운 피스턴스와의 골밑 리바운드 다툼에서 48—43, 속공으로

로 끌어 들이고 싶다면 전통적인 역피라미드형 스타일의 기사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오히려 나머지 스타일의 기사에 더 호감을 갖고 있다.

이끌어낸 득점에서 28—4로 앞선 게 승인 중 하나였다. (조선일보 2003년 5월 20일)

〈기사 2〉

두 개의 姓 갖고 사는 사람들을 아십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 황금명륜(黃金明倫·33) 기획국장의 주민등록증에는 '김명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현재의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8년. "내가 태어나게 된 근본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밝히고 싶어" 두 사람의 성(姓)을 함께 쓰기 시작했다.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름은 아버지의 성을 먼저 쓰고, 어머니의 성을 뒤에 붙인 '김황명륜'이었다. 가족에게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었다. 두 성을 함께 쓰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아버지는 그가 한 잡지에 '김황명륜'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을 읽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아버지는 오히려 "김황명륜보다는 황금명륜이 훨씬 발음하기 좋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의 은행 통장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름, 공문서 등에 나타난 이름은 여전히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 '김명륜'이다.

대학생인 이배하진(李裵河鎭·25)씨는 올 초부터 어머니의 성인 '이'와 아버지의 성인 '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가족의 첫 반응은 걱정스러움.

-중략-

정부가 호주제를 폐지하면 곧바로 자유롭게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 대답은 '아니요'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도 여성부는 아버지 성 강제조항을 폐지해 남편과 아내가 협의하에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계(父系) 성 강제조항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자녀가 부모 중의 성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략-

김이갑돌과 박허순희가 결혼하면 성은 김과 허만 따게 된다. 아버지 성 중에서는 부계를 의미하는 앞의 성을, 어머니 성 중에서는 모계를 의미하는 뒤의 성만 살아남는 것이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딸만 낳으면 대가 끊기고, 이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낙태율도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에서 부모 성 함께 쓰기를 주장하고 있는 신정모라씨는 자신의 홈페

> 이지에 "아버지와 어머니 성을 함께 쓰면 이상한 이름이 양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머니 성을 먼저 쓰고 아버지 성을 나중에 쓰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부모 성을 함께 쓰는 것은 가족 중에서 어머니만 다른 성을 쓰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3년 5월 23일)

이미 국내 신문 기자들 사이에서도 역피라미드 구조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유선영(2001)이 앞서 소개한 ASNE의 실험 세팅을 토대로 새로운 신문 기사 스타일 탐색을 시도한 바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역피라미드 구조는 19세기 중엽에 기자가 편집국으로 전보를 보내는 과정에서 전파가 끊길까봐 중요한 내용만을 먼저 송신하면서 생겨났다. 이는 근본적으로 역피라미드 구조가 독자의 이해도나 흥미도가 아닌 필자(기자나 신문사)의 편의성를 고려하여 탄생한 것임을 함의한다. 오늘날 역피라미드 구조의 중요한 장점으로 지적되는 것 또한 편집의 용이함(즉 신문 지면이 부족할 경우, 글의 뒷부분부터 자른다.)으로 근본적으로 독자와는 거리가 멀다. 역피라미드 구조는 표제만 읽으면 핵심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사 전체를 완독하게 만드는 힘이 약하다 (Brooks, Kennedy, Moen, & Ranly, 2002; Rich, 1994; 유선영, 2001). 표제만 읽으면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장점만은 아니다. 신문의 독자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신문 기사문은 독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새로운 텍스트유형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신문 기사 스타일을 바꾸려는 진지한 노력이 학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 기사문은 역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라든가 그렇게 쓰여져야만 한다는 명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신문을 읽지 않으려 한다는 사회문화적 현실이 신문 기사 스타일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유형이 갖는 중요한 성격 특히 유동성(流動性)의 현현(顯現)이다.

Ⅲ. 신문 기사문 교육의 실태

현 제7차 국어과 교과서 중 기사문을 직접적인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는 단원은 생활 국어 1학년 2학기 6단원 '여러 가지 글'이다. 이 단원은 '기사문, 보고문, 광고문, 안내문'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을 소개하고 있다. '형식에 맞추어 기사문과 보고문을 쓸 수 있다'가 하나의 학습목표로, 기사문은 '표제, 부제, 전문, 본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6하 원칙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기사문과 관련하여 총 4개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활동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1. 다음 글을 읽고, 기사문의 주요 요소에 대하여 학습해 보자.

>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략

1. 이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누가: IOC 임시 집행 위원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2. 이 기사에 알맞은 표제를 붙여 보자.

활동2. 다음 글을 읽고 기사문의 형식에 대하여 학습해 보자.

> '금강산 백일장' 성황리에 마쳐
> 중학생 263명 참가…… 아름다운 조국-분단 아픔 함께 느껴…
> '금강산 백일장'이 전국 중학생 263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강산에서 열렸다. -하략

1. 위의 기사문을 표제, 부제, 본문으로 나누어보자.
2. 기사문의 본문을 참고하여 전문을 만들어 보자.

활동3.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하여 기사문을 완성해 보자.

행사명: 교내 가을 체육대회 -하략

1. 위의 내용에 알맞은 표제와 부제를 정해 보자.
2.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기사문을 완성해 보자.

【 】

-( )-

우리 학교는 10월 23일, 교내 운동장에서 전교 학생과 선생님들,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가을 체육대회를 치렀다.

_____

_____

-하략

활동4. 학급이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기사문을 작성해 보자.

1. 한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취재하고 다음 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해 보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2. 마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문을 완성해 보자.

총 4개의 활동 모두가 역피라미드 구조와 6하 원칙 소개에 할애되고 있다. 왜 기사문이 이와 같은 형식을 띠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실제 신문 기사문을 찾아 그 형식적 특징 등을 찾아보니 오늘날의 국어문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새로운 기사 스타일이 가능하다면 어떤 형식이 될 지 등의 비판적, 창의적 활동을 고민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텍스트유형이 갖는 근본적인 특징인 '유동성'을 고려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 이미 실제 신문 기사들이 역피라미드 구조를 탈피해 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언론계 내부에서는 역피라미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를 종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문 기사문은 '반드시' 역피라미드 구조로 써야한다는 식의 내용은 학습자의 실제 언어적 경험이나 오늘날의 국어 문화와 조응하지 않는다.

단원의 길잡이나 소단원 안내 글에는 '기사문은 보고 들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간결하고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사문은 '객관성'을 담보하는 글이라는 전제하에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객관성의 이데올로기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다. 기사문에 관한 '객관성의 이데올로기'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여기저기에서도 드러난다. 중학교 문학 교육과정(8학년)의 '작품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조된 세계임을 안다'에 대한 해설(교육인적자원부, 1997:86)을 보면 '작품이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거나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 문종으로 '기사문'을 선택하고 있다. 고등학교 독서 교육과정 중 '신문 기사, 논설, 광고, 보고서 등을 읽고 각 글의 특성에 맞는 읽기 전략을 찾는다'에 대한 해설(교육인적자원부, 1997:201)에서도 '신문 기사는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로서, 보통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진술되는 것이 특징이다'고 되어 있다. 신문 기사문이 '그대로 기록하거나 모방한 것', '그대로 알리는 것'이라는 내용 속에서 '객관성의 이데올로기'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기사문이라는 텍스트유형이 논설이나 광고 등에 비해 객관적이며, 6하 원칙에 의한 역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은 국어 문화적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事實이라기보다는 史實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사문이 갖는 상기의 기본 특징은 교육될 필요가 있으나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미 기사문이 객관적인 글이 아님은 널리 알려져 있고[8], 텍스트의 기능(설명, 설득, 정서 표현 등)이 정도성의 문제임도 깊이 논의되고 있으며[9], 미디어 문식성(literacy)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8) 대표적인 예로 Fairclough(1992)를 들 수 있다.
9) 대표적인 예로 Heinemann(1991)을 들 수 있다.

'비판'에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 내용의 확충 및 심화가 요청된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사문의 변화 과정 중 특징적인 점 중의 하나는 핵심 정보를 가능한 글의 앞부분에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사 스타일로 제시되고 있는 서사형, 극명형, 관점형 등은 모두 가능한 핵심 정보를 늦춰 주는 형식이다. 고등학교 독서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1997:200)에서 정보 전달의 글은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서 필자 자신이 중요한 정보를 글의 앞쪽에 배열해 놓고 독자 스스로 선택해서 읽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두괄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신문 기사문 역시 쓰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언어적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자칫하면 국어 문화 유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결손 모델이나 의료 모델[10]에만 입각한 교육이 될 수도 있다.

Ⅳ. 텍스트유형 교육의 방향

1.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텍스트유형 교육의 중요성

국어교육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텍스트유형에 관한 교육은 오랫동안 국어교육의 주요한 교육 내용이었다. 야콥슨의 6가지 언어 기능을 이용한 텍스트유형 분류는 '장르' 혹은 '문종'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국어교육의 내용 틀을 형성해 왔다. 텍스트들을 텍스트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텍스트유형의 특징을 교수·학습하는 국어 교실은 매우 익숙한 장면이다.

---

10) 문식성의 모델로서, 결손 모델은 학습자를 뭔가 결손된 존재로, 지식을 채워 넣어야 하는 비어 있는 화병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돌린다. 의료 모델은 문식력의 부족을 개인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으로 은유한다.(최인자, 2001:212).

텍스트유형은 준수해야 할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주체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변화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이때의 적극적 참여는 해당 텍스트유형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특히 해당 텍스트유형을 읽거나 쓰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때 중요한 지식은 특정 텍스트유형이 형성된 사회문화적 문맥과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예측가능한 패턴'으로서의 텍스트유형에 대한 지식 역시 필요하다. 그러한 지식은 글쓰기나 읽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이 끝난다면 텍스트유형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2,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사문의 고정된 형식에 치중하는 교육은 오늘날 기사문의 변화 양상조차도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적 경험과 당대의 국어 문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없다.

텍스트유형에 대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사회 문화적 실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유형'의 특징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문맥, 기능 등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 '문맥화'함으로써 '창조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텍스트유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다른 삶의 문맥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택적 문맥화'된 텍스트유형들을 자신의 선택을 위한 자원으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기사문의 경우, 역피라미드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되 왜 그러한 텍스트구조가 나타났는지 그러한 텍스트구조는 어떤 기능을 갖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신문 기사문의 변화 양상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사회 문화적 문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신문 기사문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반성적 성찰을 통해 신문 기사문의 변화 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은 인지적 활동으로서의 심층적 비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분석하고 나아가 자신은 어떻게 참여하여 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참여와 실천은 신문 기사문의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쓰기 등에 의해 가능하다.

학습자의 주체적, 능동적 참여는 현 기사문에 대한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수반하며 이는 학습자에게 권력(power)을 부여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실천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Lanksher(1987)는 '권력 부여(empower)'의 개념을 '학습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며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당연시되었던 전제들을 변형시켜 나가기 위하여 직접 경험에, 외부에 존재하는 적절한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여기서 비판 능력은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반성력(critical awareness)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Fairclough(1995:227-229)는 언어에 대한 비판적 자각의 발달과 개인 언어 능력의 발달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비판적 반성에 의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언어 실천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최인자, 2001:213 재인).

이러한 교육은 박인기(2002:36)에서 논의된 문식성(lliteracy)의 작용 효과인 기능적 소통 효과와 비판적 소통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현 텍스트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의 의사소통 환경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국어 문화의 규범성, 국어 문화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적 소통 효과를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고와 행위의 방식에 대한 적응과 성찰을 실천의 차원에서 '현상의 경험 → 실천적 성찰 → 가치 실천'의 과정으로 밟게 함으로써 현 텍스트유형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 발전시키는 비판적 소통 효과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교육은 특정한 교육적 방향을 전제하고 학습자를 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 및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 문화적 실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1]

---

11) 최인자(2000)는 장르 교육의 방향을 문화적 문식력 교육과 관련지어 논하고 있다. 그동안의 문식력 교육이 일 개인을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문식력으로 이끄는 개인적 모델에 초점을 두었다면, 사회에 존재하는 다중 주체들의 '이질 문식력'을 잠정적으로 수용하는 복수의 다성적인 발달 모델을 인정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개인적 모델이 문식력의 보편성과 일반성에 주목하였다면 문화적 모델은 문맥적 변화와 차이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편 문화적 문식성은 기존 읽기 또는 기본적 문식성 기능(literacy skil)을 포함

2. 텍스트유형과 읽기 방식의 일대일 대응이 갖는 한계

신문 기사문은 6하 원칙에 의해 쓰여지며 역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선언적 지식은 신문 기사문을 읽을 때는 '훑어 읽기' 방식이 적당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독서(교육인적자원부, 1997:199-201) 중 '여러 종류의 글을 읽고 각 글의 주제, 글감, 내용, 구성 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한다'와 '신문 기사, 논설, 광고, 보고서 등을 읽고, 각 글의 특성에 맞는 읽기 전략을 찾는다'를 보면, 정보 전달의 글을 읽을 때에는 '제목과 앞부분의 문장들을 보고, 글의 내용에 대한 예측을 해 본 다음 글을 읽는 것이 좋다', '기사의 제목, 소제목, 사진, 기사 요약문 등을 먼저 읽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 다음 본문을 읽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다. 신문 기사문을 읽기 전에 먼저 글의 앞부분이나(두괄식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전체 내용을 훑어보아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내용을 예측한 뒤에 글을 읽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기우(杞憂)일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이 자칫 기사문 읽기 방식으로는 '훑어 읽기'가 적당하다는 식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 읽기는 독자의 읽기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필요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기 위해 읽는다면 훑어 읽기가 유용하다. 그러나 기사문이라는 특정 텍스트유형에 '훑어 읽기'를 일방적으로 대응시키기는 어렵다.

정보 전달의 글은 훑어 읽기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찾는 읽기가 적당하고, 설득하는 글은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는 신화가 국어교육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중학교 생활 국어 1-2학기 6단원의 경우, '기사문, 보고문, 안내문, 광고문'의 네 가지 문종을 소개하고 있는데, '기사문, 보고문, 안내문'의 세 가지 문종과 달리 오직 '광고문'에 대해서만 '비판적

하는 복합적 문식성이며 학생들을 발달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문식성 기능(literacy skill)이다. 문화적 문식성은 교육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또는 뉴미디어에 의해서 커뮤니티화되는 현대인들)에 의해 공유되는 '텍스트 해석의 구조'를 아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박인기, 2002:31).

읽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사문의 경우, 역피라미드 구조와 육하원칙 전달에만 초점을 두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 활동2. 다음 광고문을 읽고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에 대해 생각해 보자.
> 1. 표현이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자.
> 2. 우리 주변에서 표현이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한 광고문을 찾아 발표해 보자. 그리고 그러한 광고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해 보자.(중학교 생활 국어 1-2, 120쪽)

매체 환경이 다각화될수록 신문은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한 변화 과정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훑어 읽기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다양한 정보가 폭주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학생들이 기사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한다면, 국어 교육에서 추구하는 창의적 인간상을 길러내기는 어렵다.

읽기 방식은 텍스트유형보다는 독자의 읽기 목적에 의해 결정되곤 한다. 텍스트유형과 읽기 방식을 일대일로 대응하는 식의 교육내용은 한계를 노정한다. 더욱이 텍스트유형 역시 변화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예컨대 기사문의 경우 주로 두괄식 모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한 형식이 파기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텍스트유형과 읽기 방식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없이 이들을 긴밀한 상관 관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3. 텍스트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 읽기 교육의 필요성

그 동안 국어과에서 비판적 사고 교육은 주로 텍스트의 내용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텍스트에 담긴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는 일련의 과정은 '읽기'가 오직 '내용'만을 대상으로 함을 암암리에 공인한 듯하다. 그러나 읽기의 대상은 '형식' 혹은 '텍스트구조' 그 자체에도 있다.

텍스트유형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형식을 통해 특정의 세계관이나 이념 등을 내재한다. 그것은 특정 주체나 집단의 '사회적 의도'만을 부각시켜 현실의 특정 양상만을 개념화하고 특정의 가치와 관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의 구체적인 상(像)이다. 기사문의 형식(특히 역피라미드 구조와 관련하여)에는 '6하 원칙에 맞게 쓰여지는 객관적 텍스트'라는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특정 언론 주체나 집단의 진정한 사회적 동기를 감추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기사문을 공정성을 담보하는 객관적 텍스트로만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문의 형식에 담긴 객관성의 이데올로기는 기사문의 내용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특정 형식은 단지 형식적 특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사고 방식, 특정의 가치체계를 매개하고 강요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 따라서 읽기에서의 비판적 사고가 단지 글에 담긴 내용에만 치중해서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라고 보기 힘들다.

텍스트유형은 유동성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텍스트유형이 함축하는 이데올로기는 주체의 적극적, 능동적 참여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지배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 학습자는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유형을 수용하고 이용하지만 창조적으로 전유하기도 함으로써 이 과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역동적 메커니즘에 의해, 읽고 쓰는 활동은 주체가 특정의 사회,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사회적 실천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 이데올로기의 정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V. 결 론

본고는 기사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유형 교육의 방향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오늘날 기사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검토한 뒤, 기사문에 대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7차 국어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유형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텍스트유형 교육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한 최초의 국어교육적 탐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장르 중심의 교육 내용 설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사문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기사문을 중심으로 교육의 방향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장르 중심 교육 내용 설계의 한 자원(資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미디어 교육 대상에 대한 교육적 방향 탐색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유형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사문의 텍스트적 특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며, 타텍스트유형에 대한 고찰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5. 10. 27. 투고되었으며, 2005. 11. 11.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1. 2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노명완 · 이차숙(2002), 『문식성 연구』, 박이정.
박인기(2000), 『국어교육과 미디어텍스트』, 삼지원.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박태호(2000), 『장르 중심 작문 교수 학습론』, 박이정.
신명선(2002),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방법의 설계에 대한 시고", 『국어교육학연구』 14, 국어교육학회.
신명선 · 박재영(2004), 『신문 기사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미디어 연구소.
유선영(1996), "현대 신문 방송 기사 문장의 변천", 『신문 방송 기사 문장』, 언론 연구원 총서.
유선영(2001), 『새로운 신문 기사 스타일-역피라미드 스타일의 한계와 대안』, 한국언론재단.
이도영(1998), 『언어 사용 영역의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한국언론재단(1984-2002), 『수용자 의식조사』.
최인자(2000), "장르의 역동성과 쓰기 교육의 방향성", 『문학교육학』 5, 한국문학교육학회.
최인자(2001), "문식성 교육의 사회 문화적 접근", 『국어교육연구』 8,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ASNE(1993). Ways with words: A research report of the literacy committee. Washington D. C.: The 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Brooks, B. S., Kennedy, G., Moen, D. R., & Ranly, D. (2002). News reporting and writing, Boston, N.Y: St. Martin's Press.
Brooks, B. S., Kennedy, G., Moen, D. R., & Ranly, D.(1996), Workbook for news reporting and writing. N.Y.: St. Martin's Press.
Fairclough, N.(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Fairclough, N.(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gman.
Heinemann, W.(1991), Textlinguistik:eine Einführung, Tübingen:Niemeyer, 백설자 옮김, 텍스트언어학 입문, 도서출판 역락, 2001.
Kennedy, G., Moen, D. R., & Ranly, D. (1993). Beyond the inverted pyramid: Effective writing for newspapers, magazines and specialized publication. N.Y.: St. Martin's Press.
Lankshear, C.(1987), Literacy, Schooling and Revolution, London:Falmer Press.
Lemke, J. L,(1989), "Social Semiotics: A new Model for Literacy Education", In Bloome, D.(ed.), Classroom and Literacy, Norwood, NJ: Ablex.
Mencher, M. (1994). News reporting and writing. Madison, WI: Brown & Benchmark Publishers.

Murray, D. M. (1992). Writing for your readers: Notes on the writer's craft from The Boston Globe. Old Saybrook, CT: The Globe Pequot Press.

Pichaske, D. R. (1975). Writing sense: A handbook of composition. New York: The Free Press.

Pottker, H. (2003). "News and its communicative quality: The inverted pyramid-when and why did it appear?", Journalism Studies, 4(4), 501-511.

Rich, C.(1994), Writing and Reporting New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Zinsser, W. (1990). On writing well: An informal guide to writing nonfictio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www.asne.org

<초록>

텍스트유형 교육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신문 기사문을 중심으로

신명선

오늘날, 젊은층이 신문 읽기를 외면하면서 독자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새로운 신문 기사 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실제 현장의 기자들도 역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다른 유형의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신문 기사문은 역피라미드로 되어 있다.'라든가 '그래야만 한다.' 등과 같은 진술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현 7차 국어 교과서에서는 기사문이 역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육하원칙에 의해 쓰여진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텍스트유형은 유동성을 그 특징으로 하지만 이를 고려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교육은 학습자의 언어 경험이나 오늘날의 국어 문화와 부합하지 않는다.

텍스트 유형에 대한 교육은 첫째, 학습자의 사회 문화적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텍스트유형이 발생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읽고 그 기능을 이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텍스트유형을 창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둘째, 텍스트유형과 읽기 방식을 일대일로 대응하는 방식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 읽기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지 텍스트유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셋째, 비판적 읽기 교육의 대상은 텍스트의 내용에서 형식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텍스트구조 역시 이데올로기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핵심어】 국어교육, 미디어 교육, 매체언어 교육, 신문, 기사문, 텍스트유형, 텍스트구조, 장르, 문종, 읽기, 텍스트언어학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Texttype

Sin, Myeong-seon.

This paper studied a direction of texttype education centering around a news style. Today, a texttype of news is changeful. The education of news texttype isn't reflect this change. So, A consideration about a texttype education is demanded.

These days, a young person don't read the newspaper. The press sees it as a problem of the inverted pyramid. The press is studying an alternative of the inverted Pyramid. A pressman is writing a new style beyond the inverted pyramid. The present state shows a fluidity of texttype. But Korean textbook doesn't treat a fluidity of texttype. This education don't match a language experience of learner and Korean culture.

We must consider the next points as a education of texttype. First, we must teaches the context of texttype formation and it's function. And the focus of education is critical and original faculty. Second, a texttype doesn't match a reading method. Third, the object of a critical reading education must extends to textstructure.

【Key words】 Korean Education, Media Education, Newspaper, News, Texttype, Textstructure, Reading, Genre.